

응 시 공 사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2022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고사항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관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지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서명부재, 연락처부족으 로 인한 불이익은 원제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서약합니다.

성명 오동주 (이 또는 서명)

성명	[한글] 오동주		생년월일	1973년 12월 08일 (만 48세)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6번길 10, 대연보해이브아파트 101-402		연락처	휴대전화 : 010-4556-5058 전자우편 : dongjoooh@hanmail.net	
	[한자] 吳東柱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명	*응시번호										



기간	1990년 03월 ~ 1992년 02월	강해고등학교	전공	학위
1992년 03월 ~ 1997년 02월	경성대학교	음악학	학사	
1999년 09월 ~ 2001년 07월	루이저단논치오 국립음악원(대학원)	음악(성악)/오페라	디플로마(국내석사인정)	
2012년 08월 ~ 2014년 08월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경영	박사수료	

학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직사유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차장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 및 공연기획일반, 예술교육공연 진행 및 온라인강의 진행을 대외 매체 진행	2021.02.17~2022.10.26	채직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차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공연기획 및 예산배정, 단원관리 및 협력자 섭외를 전담업무 담당	2020.01.06~2021.02.16	보직변경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차장	부산시립예술단 행정지원팀 전반적 업무 및 예술단 별 예산배정, 진행, 결과보고를 행정업무와 노조관련 업무	2019.02.01~2020.01.03	보직변경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차장	부산시립예술단-시립합창단 공연기획 및 홍보 예산집행, 출연자 섭외, 결과보고를 전담업무	2016.01.05~2019.01.31	보직변경

경력사항

주역배우	2020.11.13.~17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	부산시립극단
노원문화재단 프로젝트 기획 및 출연	2021.06.05	오동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
개인발표회 및 해설음악회	2003~2020	오동주	개인	Story Concert
내용요지	연 구 연 월 일	연구자	개재서 (출판사)	제 목

□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최종학위 논문주제: 이탈리아 고전-낭만-현대 가곡 및 아리아(공연)					
학위	2012	2014	예측경영	박사수료	
경성대학교 원만대	1999	2001	음악(성악)/오페라	디플로마 (국내석사인정)	
루이저단독치오곡	1992	1997	음악학	학사	
경성대학교	1990	1992			
김해고등학교	통연년도	전 공			
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내 용					

□ 학력사항

성 명	오 동 주	생년월일	1973.12.08(만 48세)	학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6번길 10, 대연보해아파트 101-402	직전 또는 현재 소속	기관 및 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직위 : 차장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X	051-607-3112	010-4556-5058	dongjooh@hanmail.net
영 역	최종계급	국립여부	최종계급	제2국민역	사향	기타						

□ 인적사항

이 려 사



주요경력	기	간	주요경력(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주요경력
	기	간	주요경력(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주요경력

□ 주요경력(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기	간	주요경력(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주요경력
기	간	주요경력(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주요경력

□ 자격증 및 기타

2010.12.31	부산시립예술단장-부산시립예술단장	표창장(취직)
2014.01.26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2014.04.04	부산광역시의회	표창장(취직)
2016.12.31	부산광역시의회	표창장(취직)
2016.12.31	부산시립예술단장-부산시립예술단장	표창장(취직)
수상일자	내용(종류)	수상일자

□ 수상경력

오페라 리콜레트	부산시	부산시	2020.11.13	예술감독
오페라 주역출연	부산시, 창원시, 양산시			
테이크 아웃 & 4+1				
3·1절 100주년 기념음악회 공연기획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양물게 기록하되, 현재까지 귀하가 작성한 연적과 자양 물게를 상세를 중심으로 구
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작성일자 2022년 10월 26일 (수)			
* 국가 행사 및 보훈 행사 진행			
* **관역시 주최 시 행사 및 축제 운영 지원 제작			
* 부산MBC TV <부산, 부산공화>-공공주의 관으로 큰 아이아 진행			
* 부산MBC라디오 <저녁음악식>-공공주의 성악의 수레 진행			
* 해단기간 700여회 운영 기획 및 제작			
* 20회 녹장회, 5회 오페라 주역 출연(라 트라비아가, 모세, 료리아치, 카탈레리아 투스티카)			
* 이틀리아 **** 국립아카데미 디를물(성악)			
* 이틀리아 **** 국립음악원 오페라 진문 디를물			
* 예술대학 예술경영 석사학위 수료			
노동조합 관련 업무			
해당시무간사이에 대한 자양물게 기록 및 작성			
6개 관역시립예술단 연주회 및 공연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운영			
공연 계획 수립 운영 지원, 결과보고			
시간 단원 해원 근무공복			
단원 채용 계획 및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			
* 시립예술단 운영 -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제반사항			
- 해원운영지원으로 부산시립예술단의			
위탁하고			
-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부산시장상 및 부산보훈처장상 수상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는 콘테츠가 예술가의 몫이라면, 무대를 만드는 다른 한 축, 즉 공연 기획에 대해서 논을 뜨게 된 것이다. 콘테츠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고, 콘테츠를 확산시키며, 콘테츠가 가진 감동의 꼭지들을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획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내가가 가진 콘테츠에 아이디어를 가미해 실제 무대에서 울리는 현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2008년 **시립합창단 기획자로 임사하게 되었다. 시의시립조시절이 개방형 관장제를 도입하면서 조직의 변화가 일어났고 사무국으로 개편이 됨에 따라 예술단의 자제 아카데미 프로그램단으로 보직변동

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셈이다. 트로서 독창, 중창, 협연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기획자로서, 방송 진행자로써 음악음 관를어가는 즐거움도 누리고 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아티스트악 순례, 코너지기로 활동하였다. 몇몇 동호회 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한간 강사로 활동하였다. 또 MBC 라디오 프로그램 가정음악원에서, 오동주의주관하는 문화나눔 강사로 선발되어 경단 지역, 용산 지역의 시원에서 4년음악회를 개최했고, 20회의 개인 독창회를 가졌다. 2003년에는 문화관광부가, 4+1, 으로 6회의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찾아가는 공연, 20여 회의 회의 청소년은 성악가들과 함께, 단성성악양상을 4+1, 음 결성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솔리스트로서 활동하는 것 외에 지역에 뜻이 맞는 간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2002년 귀국했다.

나는 성악가로서, 스즈로 자유로운 예술을 하고, 그를 통해 관객들이 행복과화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큰 깨달음이 아날 수 없었다. 불다는 점이였다. 유학권에 오를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급 예술만이 곧어 문화와 예술은 삶의 일부와 칸고 이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데 있어서 자유우고 느끼고 돌아왔다. 가장 크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있되기 위해 이탈리아 유학권에 올랐으며, 서양 음악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나는 지역에서 태어나 성악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보다 불을한 성악가가

적위 (해당분야) : 대표이사
성 명 : 오 동 주
생 년 월 일 : 1973.12.08

자 기 소 개 서

이 되어 1년간 업무를 한 때에는 다른 문화강좌의 틀을 벗어나서 예술단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아카데미 사업구상을 이루어 후일 재단법인 변화 때 사업으로 인계하였다. 또한 예술단의 청소년교향악단의 담당기획의 업무를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청년 예술가의 안정화 사업으로 시에 청소년교향악단의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많은 변화의 주목을 받았으며 현 보직인 “찾아가는 예술단”을 통하여 7개 시립예술단을 위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각 지자체의 요구 및 성격에 따른 공연을 기획, 진행하면서 대외적 이미지 및 시민 속의 시립예술단의 가치를 확고하게 세웠다.

함창단 기획자 시절, 2009년 독일의 기획자 유스투스 포란츠와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의 독일 4개 도시 신년음악회는 부산시립합창단 최고의 해외 공연으로 손꼽히고 있다. 재독 간호사 및 평부 출신의 교향악단원 2,3세 한인에게 대한민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티스트에서 기획자로의 변화 속에 나는 또 다른 한 가지 큰 계를 얻었다. 그것은 바로 문화와 예술의 향망을 결정짓는 정책의 존재와 그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지표이자 방편이다. 문화 예술을 다루는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 상당 부분의 재량과 융통성이 허용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화 기관의 예술 기획자로서 처음에는 원칙을 우선하는 개인적 지표와 현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문화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로서 의 기획자는 어떠한 공란과 비란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재량과 융통성 보다 는 바를과 공명이 더욱 필요한 덕목임을 뚜렷이 새기게 되었다.

삶과 일에 대한 이러한 나의 입장은 준경하고 사랑하는 두 분의 인생을 돌

작성자 오 동 주 (서명)
2022년 10월 26일

한아있다'며 조직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나라의 국립 예술단의 역사는 이제 짧지 않다. 많은 성과와 아픔을 겪어온 피곤 반면 매너리즘, 재량과 융통성의 지나친 요구 등 많은 문제 역시 안게 되었다고 본다. 나는 국립 예술단의 운영 기법과 행정 담당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고, 무대 위의 예술을 간사하려 온 관객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찾아왔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충돌되기도 했지만 무대 위에서 최고의 예술성을 쫓아내기 위해 서 누군가는 간내해야 한 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직의 건장한 미래를 가꾸어가는 토대가 된다고 믿고 있다.

국립은 서양음악을 전문하고 연주자의 권을 견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학에 서 강의를 했던 교양자이기도 하고,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강의로 공무원 및 직원, 일반인에게도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조직에서 운영기획과 행정 업무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2017년 재단법인으로 변화한 조직에서 이전에는 공무원이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진행하던 것을 사무국 내에서 처리해야 했고 그런 원부 속의 원리와 틀을 세워 가는 데 인조를 했다. 시대 가 변하여 다수의 단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간섭이 들어왔고 임기제의 대표이사와의 사무국장을 직종할 수 없게 만들 때에도 원칙과 상식에 기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단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1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화재단들이 각 지역의 특색과 지역의 상황에 따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부평구문화재단은 짧은 역사 속에 많은 사업과 지역 내의 문화예술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방대하고 그 영향력은 타 문화재단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차 법정문화도시의 지정에 따라 외부적 요인들이 많으며 유독인구의 수도 특이점에 따른 지역의 문화활동 및 외부 인력에 대한 문화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 이에 본인은 문화예술을 만들고, 원자의 상황을 아는 자질을 가지고 행정과 경영을 관리하는 부평구문화재단 대표 이사직에 응시하고자 한다. 끝인 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앞으로의 비전을 가 지고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며 법정문화도시 부평구의 큰 결승에 활적을 가진 부평구문화재단의 자질을 가지고 미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물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분 예술을 대중화시키는, 문화의 민 주화'에 문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유학했던 당시의 유럽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또 향유하는, 문화의 민주주의' 시대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교육과 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관객과 시민들의 눈독이가 돌아졌고,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는 수준이 어찌면 전문 창작자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무대 위에서와 아티 스트로서, 또 공연과 더불어 여러 방면의 기획자로서 이러한 현상을 현상 췌 원선에서 직접 겪으면서 정책의 존재와 중요성을 깨달았다. 귀국 후 2003년 귀국 독창회를 시작으로 한해에 한 두 번의 개인 발표회를 가져 2020년까지 20회의 개인 발표회를 비롯한 오페라등으로 무대에 섰고, 공연의 대중화를 위한 4인에서 10인의 앙상을 팀을 결성하여 프로젝트 연주를 기획, 공연하였 으며 **광역시 공무원합창단, ** 지방 경찰청 한사랑합창단, 천버합창단을 다 양한 계층의 아마추어 합창단을 이끌었고, 대학에서 음악전공 및 일반 인문 교양과목의 강의를 하였다. 또한 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의 자유교양 인문학 부문에도 강의를 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TV와 Radio 클래식 방송 진행등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클래식의 이해를 전담하였 다. 이런 여러 경험과 2008년부터 시작한 **시립합창단의 전문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습득된 나의 업무는 공연을 두고 주체자와 관 객들 사이의 요구를 절충하며 자기 공연의 보완을 찾아관 수 있었다. 가령, 무대 위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을 자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향유 하는 관객들이 가장 큰 해복과 감동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관에 관한 관심도와 브랜딩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들에 관해 체득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이것이 실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신이 있다. 나는,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직무가 예술가, 예술가, 기획자로서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아

직위 (해당분야) : 대표이사
성명 : 오 동 주
생년월일 : 1973.12.08

부평구문화재단 공영계회사

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간수성, 역동성, 공간성의 주제별 핵심가치를 가지고 <문화적 삶과 창조적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열린소울파크>의 비전과 전략으로 2022년을 지내고 있다. 특히 제2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프로나의 시기에 서도 보다 많은 지역적이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 를 통한 지역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천시민과 인천을 찾는 많은 국민을 상대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의 물결을 통해 문화 간동을 이루는 부평구의 구정에 큰 족 를 담당해야 하는 중책의 사명으로 15년 전 출범하였다. 공연과 예술지원사업 의 역할과 광범위한 문화적 중추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의 2022년 대표이사직에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목표를 가지고 지원한다.

첫째, 부평구문화재단에 주어진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공연 및 사업 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공정과 원칙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평 구문화재단의 정체성, 구의 구책의 흐름과 방향, 기관의 경영 전략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세부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끝인은 예술 가로 활동하다 기관에서 행정을 하며 그 객관성을 위하여 원만대학원 예술경영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원무와 학문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하여 예술단체 의 공용과 행정에서도 기준을 가졌다. 특히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허용의 범 위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협의 하였다. 그 결과는 연제나 원칙과 공정이었다. 공적자의 전문이자 다양한 역량인에도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는 연제나 업무의 허용범위에 대해 이야기 하곤 했다. 끝인은 원 무에서 원무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였고 공적 기관에서 행정업무를 했던 경험 이 있기에 이 둘 사이의 접합점과 보완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부평구문화 재단을 바라보며 지며보는 많은 관계자들, 특히 예술관련 단체 및 공적자를 에게 확실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문화예술 단체 및 부평구문화재 단의 성공적인 공연과 사업에 대하여 지원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공용 등은 직책을 맡은 개인은 물론 전 직원들과 함께 진취적이고 적 극적인 자세로 이력내야 하는 운동의 목표포 함하여야 한다.

물체, 미래지향적 전략을 선택적인 선무적 전략으로 시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것이다. 특히 법정문화도시의 지원에 대한 미래의 도약을 위한 청년문화예술의 지원에 대한 다각적 방법과 보완을 시도할 것이다. 전국의 문화재단은 이미 각 지역의 특성과 특색에 맞춰 발전과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나 공통된 사회적 문제점 및 사회적 보완이 시급한 부분이 바로 청년예술가의 이탈과 지역 청년들의 부재이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지원과 함께 젊은 예술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문화예술 도시 부평구의 마중물이 되게 하려 한다. 특히 인천시와 구정의 변화에 따른 청년 문화, 청년 예술인 지원에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구상을 실현할 것이다.

셋째, 부평구민의 니즈와 수준에 부응하는 공연과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관객의 성향 연구와 니즈 분석은 물론 공연 예술의 현대적 동향, 세계의 공연 예술 분야, 사회 변화 등을 꾸준히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단순한 예술가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문화진흥과 보편적 문화 향유에 대한 지원과 방법을 제시 및 실천해야하며 그 사업과 공연들을 진행하며 그 관객과 시민들의 접할 수 있는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특히 COVID-19 이후 달라진 문화적 환경에 부평구민과 인천시민의 필요를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 참가자가 필요하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자구심을 뜻하는 여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평구문화재단의 마포미터를 세워 전국 문화재단의 네트워크와 인권을 자치구 문화재단과의 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상호 교류를 통하여 부평구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타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부평구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걸러야 한다. 많은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단순 지원이 아닌 각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야 한다. 직원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및 각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부평구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야 한다. 특히 업무량의 보편적 방향을 제시하여 위라벨의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작성자 오 동 주 (서명)
2022년 10월 26일

다.

큰 기관에서 중간 관리자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도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때 그 조직은 반드시 변화하며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역량과 경험, 아이디어,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직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한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변화에 작은 통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양자 간, 삼자 간, 다자 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만을 구축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만 구축도 필요하다. 곧 텐츠의 판로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찾아 온 폭넓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타고난 성격, 행정적 실무 경험과 위기대처능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평구문화재단은 제2차 법정문화도시의 선정으로 1차 선정도시들은 물론 함께 선정된 4개 지역 및 앞으로 선정될 지자체와 끊임없는 교류 및 경쟁을 하여야 한다. 적극적이며 선한 교류 속에 부평구만의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인원 공포 지원자 (성명) 오 동 주 (서명)

2022년 10월 26일

- ☐ 10.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형량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8.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7. 미성년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형량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13조>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므로 다음의 확인자의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작성 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사 비위면적자를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